

제 3 장

금융 개혁

- ▶ 유러머니의 국가위험도 평가
- ▶ 좋은 은행 만드는 금융개혁

유로머니의 국가리스크 평가

- 세계적인 금융전문잡지 유로머니(Euromoney)는 1980년대부터 전문가 패널에 의한 금융기관 평가를 계속해 오고 있다. 은행평가, 최고은행 선정, 외환평가, 신용평가에 대한 재평가 등을 실시한다. 국가 리스크(Country Risk)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한나라의 경제 환경을 정치 위험도, 경제 리스크 순위, 신용도로 세분화하며, 1982년부터 지금까지 조사해오고 있다.
- 글로벌리제이션의 진전에 따라 이제는 한나라의 경제상황, 한 금융시장에서의 환경변화가 그를 망처럼 연계되어 시시각각으로 변해 가는 글로벌 마케팅 상황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
 - 역사적으로 보면 1985년 3월의 달러가치 폭락이 유럽 중앙은행을 강타한 일, 1987년 10월의 뉴욕증시 폭락 「블랙 먼데이」, 1998년 10월의 러시아 모라토리엄에 따른 루블 가치 폭락, 이 모든 급변하는 상황이 금융시장의 안정, 기업경영 환경, 나아가 국가정책 수행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 유로머니는 이러한 글로벌하게 연계된 금융위험을 감지하고 예측하기 위해 글로벌 리스크 지표를 실시간(real time)으로 모니터하고 있다.
- 유로머니의 국가위험도 평가(Country Risk)는 1982년부터 세계 180개 나라에 대해 9개 항목을 가중 평균하여 얻어지고 있다. 금융전문가 패널로부터 매년 3월과 9월에 조사 평가하여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 ① 정치적 리스크(25%): 상품과 용역거래, 차입, 무역금융, 배당금지급 등 모든 지불행위에 대한 신용정도
 - ② 경제성장전망(25%): 국민1인당 GDP 성장에 대한 향후2년간 전문가 평가 성장전망
 - ③ 부채지표(10%): GNP 대비 부채총액비율, 수출액대비 이자지급비율, GNP대비 경상수지비중의 가중평균
 - ④ 지급불능 또는 재심사부채비중(10%): 부채잔고총액대비 재심사부채비중(세계은행, OECD)
 - ⑤ 신용도(10%) :Moody's, Standard & Poor, Fitch IBCA 3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 ⑥ 은행자금조달 용이성(5%): GNP 대비 무보증 장기 민간부채 상환액 비율
 - ⑦ 단기자금조달 용이성(5%): OECD 미국 수출입은행, 영국 NCM이 평가한 단기용통자금 활용
 - ⑧ 자본시장접근 용이성(5%): 각국의 국제금융시장 신디케이트론 접근 용이성
 - ⑨ 지급불능 할인(5%): 금융선진국(미국, 영국)에 대비한 각국의 지급불능 스프레드
- 유로머니의 1999년도 국가 리스크 평가는 180개국에 대해 이루어졌다. 국가 리스크 세계 180번째 나라는 북한과 쿠바이고, 가장 금융위험도가 적은 나라는 룩셈부르크(1위), 스위스(2위), 미국(3위), 노르웨이(4위), 독일(5위), 네덜란드(6위), 프랑스(7위), 덴마크(8위), 오스트리아(9위), 영국(10위)으로 아시아 나라는 10위권에 하나도 없다.
 - 싱가포르(17위), 홍콩(26위), 호주(18위), 일본(11위), 대만(24위), 뉴질랜드(21위), 말레이시아(46위), 중국(50위), 필리핀(51위), 태국(47위), 한국(40위), 인도(59위), 인도네시아(98위)에서 보듯이 열악한 아시아 지역의 금융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 한국의 금융관련 국가위험도는 30년 경제성장 역사에서 처음으로 3년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었던 1989년 말과 1990년에 19위까지 상승했으나, 1997년 IMF를 겪으면서 30위, 올해9월에는 42위로 하락했다.

[경쟁력표 12]

지난 19년간 유로머니 평가 국가 리스크 변화추이

1982년3월 - 1993년 3월(12년간)

	국가명	82년9월	83년10월	84년10월	85년10월	86년9월	87년9월	88년9월	89년9월	90년9월	91년9월	92년3월	93월3월
1	미국	-	1=	1=	1=	1=	2=	6	4	10=	7	6	2
2	싱가폴	14	15	16	20	30=	17=	20=	16	15	19	14	14
3	핀란드	11=	16	1=	10	17	17=	12	10=	8	14=	16	18
4	룩셈블그	-	-	-	11=	13=	-	-	-	2	8	18	11
5	네덜란드	9	12	11	1=	1=	10=	10=	8=	3=	3	2	5
6	스위스	-	1=	1=	1=	1=	1	4=	1=	6	2	3	3
7	홍콩	11=	29	32	21	23	24	23=	27	29	28	25	25
8	덴마크	4	17	18	16	11=	12	23=	17=	10=	9	12	12
9	독일	-	1=	1=	1=	1=	2=	2=	3	18	4	4	7
10	캐나다	10	6	1=	1=	9	6=	4=	6=	9	10=	8	9
11	아일랜드	15=	23	22	22	18	25=	26=	22	10=	18	21	20
12	호주	6=	8	1=	1=	16	10=	7=	19	24	20	15	15
13	노르웨이	17	13	12	14	10	14=	17=	13=	14	10=	11	13
14	스웨덴	1=	7	1=	1=	1=	8=	7=	8=	7	12	13	16
15	영국	1=	1=	1=	1=	1=	2=	2=	5	17	14=	9	8
16	일본	-	1=	1=	1=	1=	2=	1	1=	1	1	1	1
17	아이슬랜드	15=	40=	40	26	24	20=	26=	23=	31	22=	24	21
19	대만	8	11	10	11=	11=	8=	7=	10=	3=	6	7	6
20	오스트리아	6=	9	13	15	15	17=	19	17=	26	22=	19	19
21	뉴질랜드	3	18	14	17	13=	14=	13=	6=	3=	5	5	4
22	프랑스	5	14	17	11=	1=	6=	10=	10=	13	13	10	10
23	벨기에	13	26	21	24	19=	14=	13=	15	20	17	17	17
24	스페인	89	83	-	62	60=	43	38	49=	59	38	32	29
25	이스라엘	49	81	109=	107	98=	85=	51=	69=	51	47	35	39
25	칠레	40	73	53	82	77=	46	55=	59	63	45	51	58
26	헝가리	67	56	52	49	28=	31	39	39=	39	44	46	47
27	말레이시아	21=	19	24	27=	36=	32	35=	29=	23	26	31	33
28	포르투갈	30	44	37	44	26	30	28	21	21=	24	23	22
29	중국	54	24	20	19	22	22=	20=	31=	35	43	43	42
30	이탈리아	21=	21	19	23	21	13	15=	13=	16	16	22	24
31	그리스	23	25	29	35	41	33=	33=	31=	36	30	28	31
32	필리핀	28=	37	76	80	92	57=	78	75=	75	81	77	71
33	아르헨티나	66	65	95=	79	82=	66=	83=	101=	92	78	54	62
34	태국	32	22	27	30	30=	27	15=	25=	21=	21	20	23
35	브라질	58	87	86	88	73	59=	69=	93=	65=	65=	70	66
36	멕시코	64	60=	48	55	77=	54=	65	63=	46	34	45	46
37	터키	57	42	42	56	45	51=	49	39=	52	40	37	44
38	한국	34	31	30=	32	25	20=	20=	20	19	25	29	32
39	인도	24	30	33=	46	28=	29	32	31=	45	51	57	55
40	슬로베니아	-	-	-	-	-	-	-	-	-	-	74	63
41	체코공화국	77	49	35=	41	33=	25=	30=	38	38	35	49	48
42	남아공화국	20	27	28	31	60=	47=	66=	60=	50	36	47	43
43	콜롬비아	31	36	44	47	59	57=	54	80=	65=	60=	48	49
44	폴란드	93=	94	93	86	70	70=	60=	75=	71	57=	71	78
45	베네주엘라	40	73	53	82	77=	46	55=	59	63	45	51	58
46	인도네시아	25	35	25	37	42	37	42=	39=	33	32	40	41
47	러시아	-	-	-	-	-	-	-	-	-	-	129	149

자료출처 : Euromoney, 「Country Risk Report」, 1999.11

[경쟁력표 12] (계속)

지난 18년간 유로머니 평가 국가 리스크 변화추이

1993년 9월 - 1999년 9월(최근7년간)

	국가명	93년9월	94년3월	94년9월	95년3월	95년9월	96년3월	96년9월	97년3월	97년9월	98년9월	99년 3월	99년 9월
1	미국	1	1	1	5	4	5	3	2	1	2	4	3
2	싱가폴	12	10	4	8	2	3	7	3	11	21	17	17
3	핀란드	21	22	21	19	18	18	17	15	15	12	12	12
4	룩셈블그	3	3	3	1	3	1	1	1	2	1	1	1
5	네덜란드	7	5	9	6	5	6	4	5	3	4	5	6
6	스위스	4	6	2	3	1	2	2	10	12	6	2	2
7	홍콩	22	24	23	24	23	23	25	27	25	32	26	26
8	덴마크	9	8	11	11	12	12	11	6	8	11	9	8
9	독일	13	9	10	7	7	7	8	8	7	3	6	5
10	캐나다	6	4	12	14	14	15	16	9	6	15	16	16
11	아일랜드	20	20	20	16	15	20	14	11	10	10	15	13
12	호주	16	17	16	17	17	14	18	17	18	19	18	18
13	노르웨이	11	11	14	12	11	11	10	7	5	8	3	4
14	스웨덴	19	16	19	21	21	21	20	20	21	14	14	14
15	영국	10	12	8	10	9	9	5	4	4	9	13	10
16	일본	2	13	6	2	6	4	12	13	13	23	11	11
17	아이슬랜드	24	25	28	25	25	28	24	26	24	22	22	22
19	대만	8	2	5	9	10	8	9	12	9	5	25	24
20	오스트리아	17	18	18	18	19	17	15	16	17	17	8	9
21	뉴질랜드	5	7	7	4	8	10	6	14	14	7	20	21
22	프랑스	14	14	13	13	13	13	13	18	16	13	7	7
23	벨기에	18	19	17	20	20	19	23	21	19	16	10	15
24	스페인	29	30	33	31	31	33	32	35	33	31	21	20
25	이스라엘	41	35	37	34	32	29	29	32	29	30	31	31
25	칠레	59	56	68	67	80	87	78	80	71	76	41	38
26	헝가리	46	44	46	50	44	44	44	46	41	39	39	39
27	말레이시아	28	26	26	28	28	25	27	28	28	53	58	46
28	포르투갈	25	23	24	27	26	27	26	23	20	20	23	23
29	중국	38	38	30	42	38	40	40	45	40	41	45	50
30	이탈리아	23	21	22	22	24	22	21	25	23	18	19	19
31	그리스	35	31	34	39	39	38	37	41	30	27	27	27
32	필리핀	62	59	56	60	53	50	51	54	49	55	53	51
33	아르헨티나	55	51	49	56	61	57	54	59	52	48	55	54
34	태국	15	15	15	15	16	16	19	19	22	24	49	47
35	브라질	77	63	62	58	58	60	57	60	61	70	76	71
36	멕시코	48	46	44	52	57	53	52	51	51	47	47	48
37	터키	44	48	61	57	55	54	53	67	69	61	67	66
38	한국	26	27	25	26	22	24	22	22	27	42	44	40
39	인도	53	50	47	51	45	45	46	50	53	59	60	59
40	슬로베니아	61	73	53	47	50	46	34	38	36	33	32	33
41	체코공화국	43	40	39	35	41	36	35	37	37	40	43	45
42	남아공화국	49	45	48	45	46	49	48	48	44	50	56	55
43	콜롬비아	47	47	45	48	49	51	47	52	55	45	59	61
44	폴란드	72	80	73	71	72	58	55	62	47	38	42	42
45	베네주엘라	59	56	68	67	80	87	78	80	71	76	82	78
46	인도네시아	42	43	40	40	35	39	41	43	43	88	88	98
47	러시아	137	138	138	141	143	101	86	91	79	127	161	159

자료출처 : Euromoney, 「Country Risk Report」, 1999.11

[경쟁력표 13]

금융개혁관련 IMD평가 Finance(금융환경)부문경쟁력

*표시는 설문항목으로, 동 항목의 지표는 10점 만점으로 조사한 항목별 설문결과의 평균임

항 목	한 국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금융환경 부문 종합순위	41위	미국	룩셈불그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자본비용 분야	37위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룩셈불그	오스트리아
4.01 실질 단기이자율 (‘98)(평균 실질은행할인율, 1월-12월)	38위 6.37	칠레 -4.38	콜롬비아 -4.28	체코공화국 -2.70	태국 -2.17	터어키 -2.12
4.02 자본비용이 경쟁력 있는 사업 개발을 어렵게 하지 않는 정도*	33위 2.96	스위스 8.51	네덜란드 8.47	핀란드 8.42	룩셈불그 8.24	독일 8.18
4.03 국별 신용등급(0-100점 기 준,기관투자자전문지 IIM 평가)	34위 53.6	스위스 93.4	독일 92.9	네덜란드 91.9	미국 91.2	영국 90.9
자본 가용성 분야	42위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독일	벨기에
4.04 기업의 재무건전성(부채정도)이 경쟁능력을 저하시키지 않는 정도*	34위 3.47	스웨덴 7.72	핀란드 7.35	네덜란드 7.35	싱가폴 7.34	룩셈불그 7.17
4.05 신용흐름이 은행에서 기업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정도*	42위 2.69	핀란드 8.61	덴마크 8.00	네덜란드 7.93	호주 7.79	스웨덴 7.77
4.06 외국금융기관이 국내시장에 접근하는 정도*	42위 6.57	룩셈불그 9.37	아르헨티나 9.23	홍콩 9.04	핀란드 9.03	뉴질랜드 9.00
4.07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이 외국인 회사에 제한되지 않는 정도*	44위 5.74	홍콩 9.25	뉴질랜드 9.23	핀란드 9.13	네덜란드 9.11	덴마크 9.05
4.08 외국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이 국내기업에게 제한되지 않는 정도*	44위 4.69	홍콩 9.43	뉴질랜드 9.42	핀란드 9.35	독일 9.08	오스트리아 9.03
4.09 할부금융(Factoring) (‘97)(%, 제품수출비중)	21위 0.37	터어키 2.10	덴마크 1.63	영국 1.56	네덜란드 1.50	아이슬랜드 1.31
4.10 자본시장(제2금융권시장 포함)이 기업자금조달에 적절한 정도*	34위 5.10	네덜란드 8.12	호주 8.09	스웨덴 8.00	홍콩 7.82	핀란드 7.81
4.11 벤처자본이 사업개발에 쉽게 활용되는 정도*	39위 2.99	미국 7.45	네덜란드 7.26	대만 7.02	이스라엘 6.86	핀란드 6.74
주식시장 활력 분야	45위	미국	스위스	홍콩	영국	호주
4.12 주식시장의 주식발행액 (‘98)(억\$)	32위 419	미국 86,074	일본 21,020	영국 20,976	독일 8,252	프랑스 6,779
4.13 주식시장 거래가치 (‘96-’98 평균)(\$, 국민1인당)	19위 3,296	스위스 56,509	홍콩 39,643	대만 38,967	미국 28,134	네덜란드 18,738
4.14 국내 공개기업 수 (‘98)(업체, 공개기업 수)	7위 776	미국 8,851	인도 5,843	일본 2,387	영국 2,046	캐나다 1,362
4.15 주주의 권리와 책임이 잘 정의되어 있는 정도*	47위 2.86	핀란드 8.45	호주 8.41	덴마크 8.38	노르웨이 8.35	스웨덴 8.28

[경쟁력표 13] (계속)

항 목	한 국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4.16 내부거래가 주식시장에서 흔치 않는 정도*	40위	덴마크	싱가폴	호주	핀란드	룩셈불그
	4.28	8.86	7.88	7.82	7.35	7.35
은행부문 효율성 분야	38위	룩셈불그	미국	캐나다	스위스	홍콩
4.17 중앙은행정책이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정도*	42위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싱가폴	스페인
	4.85	8.76	8.49	8.33	8.30	8.09
4.18 은행 규모(자산순위) (’97)개, 세계 500대 은행중)	9위	일본	미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12	105	63	41	32	19
4.19 은행부문 자산 (’97)(%, GDP비중)	23위	룩셈불그	스위스	홍콩	말레이시아	대만
	80.09	587.27	220.72	211.05	201.00	150.73
4.20 이자율 스프레드 (’98)(%, 대출금리-예금금리)	2위	대만	한국	슬로베니아	캐나다	말레이시아
	1.10	0.58	1.10	1.50	1.57	1.75
4.21 금융기관에 대한 법적규제가 금융안정에 적절한 정도*	41위	룩셈불그	싱가폴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4.39	8.73	8.36	8.33	8.26	8.26
4.22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정도*	45위	룩셈불그	핀란드	스위스	덴마크/뉴질랜드	
	4.83	9.71	9.11	8.95	8.38	
4.23 금융기관의 투명성이 제공되는 활동정보에 의해 나타나는 정도*	44위	룩셈불그	칠레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3.39	8.48	8.04	7.93	7.76	7.72
4.24 금융에 대한 교육이 국내에 서 충분히 이루어지는 정도*	46위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이스라엘	싱가폴
	3.14	8.18	8.10	7.87	7.82	7.61
4.25 금융법을 잘 아는 사람들을 노동시장 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도*	46위	호주	칠레	네덜란드	덴마크	이스라엘
	4.53	8.45	8.34	8.24	8.23	8.22
4.26 신용카드 발급 수 (’98)(명, 인구 천명당)	6위	미국	캐나다	홍콩	영국	일본
	662.9	1,745.1	1,044.6	917.6	868.0	662.9
4.27 신용카드 거래액 (’98)(억\$, 국민1인당)	(순위없음)	룩셈불그	미국	캐나다	스위스	홍콩
	-	26.17	-	-	12.52	-

*표시는 설문항목으로, 동 항목의 지표는 10점 만점으로 조사한 항목별 설문결과의 평균임

● 경쟁력 제안 ●

좋은 은행 만드는 금융개혁

첫째, 지식정보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국민의 높은 저축률을 활용, 벤처투자를 증대할 것을 제안한다.

- 세계는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주도경제로 전환하고 있으나 이 분야에 대한 우리의 투자수준은 낮다.
- 높은 저축률이 은행중심으로 몰려 모험을 기피해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투자로 유입이 안되기 때문이다.
- 저축이 높은데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익률이 하락하여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 구조적 불황의 위험이 있다.
-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평가기능을 확충하여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자. 저축자금이 벤처투자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자.

둘째, 투명한 재무구조확립을 위해 기업회계제도를 국제기준화 할 것을 제안한다.

- 우리 나라의 회계기준은 세법, 상법, 증권거래법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복잡하여 국제회계기준과의 차이로 인해 국내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와 이해도가 매우 낮다.
- 기업의 회계정보가 투명하지 못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고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많아, 기업의 적응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회계기준을 확립하자. 회계정보의 전략적 활용가치를 창출하여 지속적인 감사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기업내부의 관리 편의성을 높이자.
- 기업회계기준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법제화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전자상거래, 전자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자.

셋째, 디지털 경제자유의 신장을 위해 개인재산비밀을 보호하고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

- 디지털 경제가 오면 금융실명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를 침해할 부패한 권력과 '다수의 공포'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자유'본능이 법으로 보장되어야한다.
- 공개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하여 경제적 자기 이익추구의 기회를 신장하자.
- 자유화의 원칙에 맞는 부정부패척결과 돈 세탁 방지 입법을 확립하자.
- 개인재산비밀을 보호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납세자 디지털 권리장전'을 제정하자.

넷째, 경제활동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할것을 제안한다.

- 전자거래는 급속하게 범 세계화되고 있는데 국내활용은 초보적 수준이다.
- 우리는 아직도 산업사회의 뒤따라가는 습관에 젖어 전자상거래의 확산추세에 동참하고 있지 못하다.
- 전자거래시스템을 빨리 도입해 경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자.
- 전자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표준을 확립하도록 정치권이 나서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